

서울반도체, 차세대 LED조명 개발

2014년형 아크리치 LED 가로등 공개 ... 1만루멘으로 전력난 해소

서울반도체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2014년형 아크리치 LED 가로등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LED(Light Emitting Diode) 가로등은 경기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13 R&D 성과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아크리치 LED 가로등은 광량이 1만루멘으로 높고, 광각은 120도에 달하는 광각렌즈를 적용해 빛이 퍼지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컨버터(Converter)와 방열판이 없어 무게도 가볍고, 에너지효율이 높아 유지비용 절감과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크리치 가로등에 탑재된 아크리치2 LED 모듈에는 고집적 소자기술을 구현한 <MJT4040 LED> 패키지와 <아크리치 IC(직접회로)>가 채용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31>